

#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예빈	소속(학부/과)	경영학과
파견 학기	2019년도 2학기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폴 레오나르도다빈치 대학교(Pole Leonard de Vinci University)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를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자격요건만 된다면 일정부분 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전공과 교양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대학생 신분으로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해외경험을 해보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우선, 우리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선발됐을지라도 선발 이후에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에 어학 성적이 있습니다. 조건은 토익 800이상(현지에서는 B2로 명칭 합니다.), 혹은 현지학교에서 보내주는 서류의 양식에 맞춰서 우리 대학교의 어학 교수님이나 원어민 교수님께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과 영어로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준비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많이 더듬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저희가 교환학생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는 분들이시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출 가능한 기준 어학자격증에 토익을 제외한 OPIC이나 다른 어학 자격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발급입니다. 비자발급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프랑스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프랑스 대사관으로 비자발급신청을 하기 전, 캠퍼스 프랑스라는 기관을 먼저 거쳐야합니다. 캠퍼스 프랑스 홈페이지에 관련 절차가 설명돼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은 캠퍼스 프랑스에서 면접을 봐야하는데, 학생 모두에게 자기소개를 한국말로 간단히 시킵니다. 하지만 랜덤으로 몇몇 학생을 지목해서 불어전공이라면 불어로, 영어로 수학한다면 영어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캠퍼스 프랑스의 도장이 찍힌 학교 등록증을 가지고 그 이외의 구비서류를 들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비자발급신청을 하러 가야합니다. 대사관은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방문할 날짜를 체크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헹데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캠퍼스 프랑스에서 면접을 보고 도장을 받고 나오자마자 홈페이지에서 헹데부를 잡기 위해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재빠르게 자리를 예약한 후라 저는 약 보름 뒤의 날짜로 헹데부를 잡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 신청할 때 프랑스 거주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할 곳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가 불명확할 시 임시 거주지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항공권 또한 캠퍼스 프랑스 면접 전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출국기간을 다소 넉넉히 잡아두시고 대사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여권을 제출하고 나중에 여권을 일양택배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이 시기가 아주 들쭉날쭉하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공권을 취소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출국 전에 보내준다고는 하지만, 대략 2주 정도로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이 여권을 받을 택배의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운송장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택배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 추적 가능합니다. 일양택배에 전화해도 운송장을 모른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간단합니다. 상대교에서 구글 폼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내줍니다. 개강 후에 수강신청 과목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냥 다 신청하시고 수업을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 수업인지 잘 파악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갔던 폴 대학교는 학교 전용 기숙사는 없고,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학교 근처의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폴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학교는 하나의 큰 건물입니다. 학교는 파리 중심지가 아닌 라데팡스라는 신시가지에 위치합니다. 날씨가 파리보다는 주로 흐리고 춥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비를 맞다가 집에 도착하면 그쳐있는 행태였습니다. 저는 17구에 살았는데, 기차를 타고 2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다만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생활한다면 편도로 45분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파리의 어느 구에 살 것인지는 대학교의 위치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대학교 근처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데 이 마켓이 파리 근방에서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수기 없습니다. 애들 텀블러 들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 떠다 마십니다. 개인적으로 텀블러를 하나 구비해서 집에서 생수를 담아서 들고 다니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1교시가 8시 15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학교생활에 유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learning center라고 공부하거나 과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습니다. 샌드위치랑 커피를 파는 카페테리아도 있고 이른바 학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불어를 할 줄 안다면 좀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경영학 과목을 수강했는데, 대부분의 과목에 조별과제가 존재합니다. 단, 회계에는 조별과제가 없습니다.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실력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영어 점수는 높으나 회화실력이 정말 안 좋다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정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원어민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유럽 출신 혹은 인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의 발음이 정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의 듣기,쓰기,읽기,말하기 중에 듣기가 가장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 분들 특유의 억양과 발음에 있는 습관 때문에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아닌 프랑스어와 같은 교양 수업도 3시간 수업이 기본입니다.

한국처럼 모든 수업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주 수업의 스케줄은 변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다음 주 수강 스케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어떤 과목은 한 학기에 5번 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 잉글리쉬 같은 수업은 2주에 한 번씩 있습니다.

학점을 받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결석은 총 8번까지 괜찮습니다. 8번까지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

도 됩니다. 아팠던지 혹은 귀찮았던지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는 만약 아파서 결석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기본적으로 안내를 8번이라고 하나, 12번까지 빠져도 따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번 이상 빠지면 제적입니다. 프랑스는 파업도 잦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을 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제나 혹은 다음 수업에 대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12번 이상 결석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교는 Compensation System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그룹 안에 들어있는 수강 과목끼리는 점수를 나눠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학교에서는 한 과목의 만점을 20점으로 하고, 10점을 넘기면 그 과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관리회계라는 과목에서 20점 만점에 15점을 받았고, 인터네셔널 회계라는 과목에서 5점을 받았으면, 이 두 개 과목은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관리회계가 가진 5점을 인터네셔널 회계 과목에 더할 수 있습니다. 총 40점에서 20점이 되므로 두 과목 모두 패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석이 12번 이상이라면 이 compensation system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과목이 최소한 4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험을 치르지 않아 0점을 받는다면 다른 과목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물가가 정말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 한 달에 넉넉하게 그냥 100만 원쯤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대략 70만 원 정도 월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구하면 50만 원대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율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60~80만 원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이 없다 그러면 마트에서 장봐서 직접 요리해 먹으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치 먹을 식품 마트에서 8만 원 정도면 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가 만약에 7~80인데 생활비 한달에 100만원이면 외식은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햄버거 세트 2개에 기본 3만원정도, 조금 비싸면 4만 원 정도 합니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파견대학 국제팀은 파리를 투어하기도 하고 교환학생을 위한 파티도 자주 엽니다. 본인이 참여하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착한 친구들도 많고,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파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참여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릴 것이 없습니다.

###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교내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지하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같은 공간은 없으며 조별과제 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Learning Centre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축구장, 농구장, 강당과 같은 장소는 없습니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대부분이 유럽에서 오는 친구들입니다. 아시아권은 중국인은 단 한 명, 일본인은 전혀 못 봤고, 대만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 유럽친구들과 non-EU 국가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통 아시아 학생들은 아시아 학생들끼리 다니고 유럽 친구들은 유럽 친구들끼리 다닙니다. 어울리고자하면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친근하게 친해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친구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문법적인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말을 내뱉는 데 두려움이 없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다만, 각 국 특유의 억양이 엄청 강합니다. 특히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친구들 모두 다 다른 억양인 것이 확연히 들립니다. 신기하게도 자기들끼리는 잘 알아듣던데, 개인적으로 전 잘 안 들렸습니다. 한 마디로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수업 참여에 적극적이어서 발표도 곧잘 하고, 영어 회화에 자신이 있다면 학교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발표 내용에 상관없이 애티튜드를 중시하는 면모가 보여서, 내용이 다소 허술하더라도 말을 유창하게 하면 점수를 잘 주셨습니다. 이분은 인종차별로 학기 중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양인이 내성적이고, 남미 애들은 거칠다는 편견이 있어서, 남미 애들에 대한 발언으로 유럽 학생들이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을 수업 중에 자주 농담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애들은 그냥 늘 하하 하고 웃는다며 그 흥내를 내는 농담을 하신 적 있습니다. 유럽 친구들도 물론 그 말에 다들 웃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파리 17구에서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16/17구를 벗어나거나 라데팡스같은 곳에서는 흑인들이 종종 니하오라고 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 친구는 우리에게 너희는 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냐고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라틴어가 서유럽과 남유럽 언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를 공유하는 문화의 나라들은 서로 어느 정도 각자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니만큼 이 정도의 인종차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감안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출국 전까지 회화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불어도 많이 알고가시길 바랍니다.

###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은 저에게 늘 버킷리스트였는데 드디어 끝나치고 왔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상상했던 것과 정말 다른 점도 많았고, 좋은 시간도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알게 된 것은 생활수준에서 인프라가 가

장 잘 갖춰진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프랑스에 가자마자 정말 호되게 감기를 앓았었는데, 병원에 한번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프랑스 약국에 있는 약이란 약은 다 섭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시스템이 낯설고 영어로 수업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힘들긴 했지만, 사실 프로그램 자체만 보면 한국 학생들이 두 배 정도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유로움이 부럽기도 했지만, 체계적인 면모는 한국의 방식이 더 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학생들에게 배울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즐기고 본인이 가진 의견을 개진해나가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업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에서 학생이란 자고로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에 도착해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예전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능동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